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街路樹 호을덮개 先驅者

韓國街路樹保護(株) 朴仁浩 회장



〈朴仁浩 회장〉

머리속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가득하고, 가슴속에는 무한한 희망과 이상이 있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發明人 朴仁浩씨(51). 그는 人間 朴仁浩, 韓國街路樹保護(株) 회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八方美人이다.

차회장이 發明한 街路樹 호을덮개는 街路樹가 있는 곳이면 全國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發明博士라고 불리는 차회장의 이야기.

5백여건의 發明·考案을 出願하여 3백여건을 登錄한 차회장은 여기에 들어간 費用만도 1억원이 넘는다.

企業化에 실패하여 79년에는 거리의 發明人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뚝이처럼 일어서 오늘의 韓國街路樹保護(株)를 誕生시켰다.

그에게 不可能은 없다. 每事를 물음표로 바라보며, 스스로 그 물음표의 답을 찾아내기 20여년.

그 각고의 세월은 79년 제네바 國際發明展 수상·81年 優秀發明人 大統領 표창·84年 産業褒章 수상 등 크고 작은 10여개의 國內外 수상이 안겨졌다.

이제 그는 앞으로 또 닦칠지도 모르는 不幸과 내리막길이 결코 두렵지 않다. 지난 세월동안 경험하고 살아온 그의 人生이 앞으로의 닦칠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있다.

그가 街路樹 호을덮개를 發明하고자 作心한 것은 79년 가을. 事業에 실패하고 무작정 거리를 거닐다 콘크리트에 덮혀 물도 먹을 수 없는 街路樹를 보고 이들의 신세가 자신만큼이나 不幸하다고 느껴, 이

들을 위한 호을덮개를 發明하기로 했다.

이미 수많은 發明을 한 그에게 街路樹 호을덮개는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이 보다 복잡한 發明도 수없이 했기 때문이다.

그가 發明한 호을덮개의 특징은 첫째, 街路樹의 根原部를 보행인의 발길로부터 保護하여 水分 및 산소가 잘 흡수되어 樹勢를 強하게 하여 주며 둘째, 비료주기가 간편하고 셋째, 한번 設置로 半永久의이며 넷째, 樹木에 대한 愛着心을 길러주며 다섯째,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등 실로 多樣한 技能을 지니고 있다.

“여건이 주어진다면 發明人들의 發明品을 展示하는 發明博物館을 지어 後世들에게 보여줄 計劃입니다.”

發明으로 成功한 그는 이제 元老 發明人답게 후배 發明人 양성을 위한 포부도 원대하다.

發明에 대한 知識도 해박한 朴仁浩 회장. 그는 요즘도 發明에 몰두하고 있다. <○>